

사회

# 350만원 '공짜 주유' 남구청 공무원 조사

## 경찰, 직무 관련 수뢰 혐의

광주남부경찰청은 7일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어치의 차량용 기름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광주시 남구청 공무원 Y(4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발자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남구 양과동

모 주유소에서 50여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고, 업체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그러나 Y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기름이나 향유를 제공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유소 전표 등 압수품과 업체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 ■ 전국 어린이 90명 2박 3일 '송광사 템플 스테이'



6일 템플 스테이를 위해 순천 송광사를 찾은 90여명의 어린이들과 젊은 스님들이 한데 뒤섞여 물총을 쓰고 있다. 놀이가 무리익을수록 어린이와 스님, 자원봉사자들의 웃음소리와 표정이 점점 많아졌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물총놀이·노래·율동 '야단법석'

## 어린이들 눈높이 맞춘 사찰 체험 엄숙 벗어나 신나고 즐거운 시간 모두가 부처·소중한 존재 깨닫게

고요해야 할 산사(山寺)가 소란스럽다. 지불국사 등 곁출한 스님을 배출해온 사찰에서 풍요 '야단법석'이 울려 퍼지는가 하면 아이들 스타 빅뱅의 '붉은 노을'이 참선도량을 뒤흔든다. 그윽한 계곡물 소리를 감상하거나, 조용히 거닐기 위해 사찰을 찾은 방문객들은 '이게 뭐지?'라는 표정이었다.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와 더불어 삼보사찰(三寶寺刹) 중 하나인 송광사. 6일 낮 종무소를 거쳐 사자 무쪽으로 발걸음을 댄 '부처님을 사랑해요'라는 찬불동요가 들려왔다. 그레고리 소리처럼 동요와 찬불가, 대중가요를 번갈아 따라부르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산사를 들쭉거리게 했다. 말 그대로 '야단법석(野壇法席)'이었다.

사자무는 전국에서 온 90여명의 어린이들이 내뿜는 열기로 뜨거웠다. 지난 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짜인 '템플 스테이'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다. "어디에서 왔어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수원이요" "광주요" "순천이요" "서울이요"라는 답변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전날 부모님과 학원장 등의 손에 이끌려 사찰을 찾은 어린이들은 8개조로 나뉘어, 사찰을 둘러본 뒤 공양하는 법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1시간에 걸친 율동시간이 끝난 뒤 '신나는 물총 싸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살수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20분이나 율동을 더 배워야 했던 어린이들은 '물놀이 하러 가자'는 선생님의 말에 폴짝 폴짝 뛰었다. 광양에서 온 박주휘(11)군은 "절에 오면 심심하고, 답답할 줄 알았는데, 컴퓨터 게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 재밌다"며 물총놀이가 장소로 손꼽힐 정도로 재밌었다.

사찰 한 편에 마련된 전통찻집 앞 공터에는 붉은 대야 8개와 100개는 족히 될 페트병이 준비돼 있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물총놀이의 '희생양'이 될 젊은 학인(學人)스님 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 몸을 풀고, 물벼락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찰 내 강연(講院·경전을 배우는 사원)에 있다는 삼법(三法)스님은 "오늘은 사찰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해 젊은 스님들이 온몸을 내던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스님은 "사찰 체험행사는 연령대에 맞춰 진행된다"며 "어린 친구들에게 물총놀이가 최고"라며 익살스럽게 웃기도 했다.

간단한 준비운동을 마친 뒤 물총놀이가 시작됐다. 물총놀이는 살수차가 3번이나 다녀갈 정도로 치열하고 시원스럽게 진행됐다. 한여름 더위는 꺼어들 틈이 없었다. 어린이들의 웃음과 젊은 스님들의 웃음이

점점 많아졌다. 스님과 어린이, 진행 선생, 봉사자 150여명 모두는 물이 물에 젖을 때 까지 물총싸움을 계속했다. 물총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울며 떼쓰는 코흘리개도 눈에 띄었다.

어린이들은 이날 저녁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하고, 캠프아이 어울 한 뒤 산사에서 이틀째 밤을 마무리 지었다. 광주에서 온 전재영(10)군은 "맨날 잔소리하는 엄마보다 별빛 아래 스님들과 노는 게 더 신났다"면서도 "엄마가 보고싶은 건 사실"이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송광사 포교국장 각안(覺眼)스님은 "종교와 신앙이라는 관념을 떠나 어린이들이 사찰에서 마구 뛰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청소년이나 장년층과 달리, 어린이에게 어렵고 심오한 말 자체가 슬도 없다"며 "사찰 체험을 통해 부처님 과 절, 그리고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결코 먼 존재가 아니라 걸 알려주고 싶었다. 또한 어린이들 모두가 부처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순천=김형호기자 khh@



## 구급차 빗길 전복 환자 등 4명 부상

7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 제2순환도로 금당터널 인근에서 광주 모 병원 구급차가 가로등과 충돌한 뒤 중앙에 있던 화단으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이모(여·74)씨가 옆구리를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구급차 운전기사 하모(34)씨와 간호사, 환자 보호자 등 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빗길에 있던 터널에서 속도를 낸 구급차가 터널을 빠져나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폐의약품은 약국 수거함에"

### 광주시 회수 동참 호소

광주시는 7일 "가정 내 폐의약품을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담아 버리면 약품에 함유된 성분들이 토양·수질 오염을 유발시킨다"며 "가정 내 폐의약품을 약국에 비치된 수거함에 버려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회수를 위해 모든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해놓았는데도 시민의 약 90%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나 싱크대, 변기통에 버리거나 집에 보관하는 등 수거함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의약품 회수처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은 보건소로 운반돼 소각 처리된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 임금 못받자 시장실 컴퓨터 훔쳐

○"임금을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광주의 한 웨딩 자재 납품업체 시장의 사무실에서 물품을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서행.

○"7일 북부경찰에 따르면 K(여·26)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에 광주 서구의 김모(49)씨의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2대와 모니터 1대 등 시가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

○"조사결과 K씨는 김씨가 출장간 틈을 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는데, 경찰에서 "1년 간 일했는데, 임금 70만원을 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경찰은 K씨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점과 출입문이 파손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K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검거.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음란·퇴폐 전단지 근절 나섰다

### 북부경찰, 인쇄공장 2곳 압수수색

경찰이 음란·퇴폐 전단지 제작·배포한 인쇄공장 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본색원에 나섰다.

광주북부경찰청은 7일 음란·퇴폐 전단지를 제작한 업주 권모(80)·김모(42)씨 등 대구·대전 인쇄업체 대표 2명과 인쇄를 의뢰한 광주 모 인쇄업체 업주 강모(·57)씨 등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발자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와 김씨는 대구

시 북구 노원동과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의 자신의 인쇄공장에서 강씨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음란 전단지 8만 장을 제작해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 등은 출장마사지 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음란 전단지를 주문 제작한 뒤 이를 공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음란·퇴폐 전단지 제작업체가 수 백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 유치원·학교 21곳 신설

## 2014년 까지 ... 2012년엔 북구에 공립 특수학교

광주에 2014년까지 공립 특수학교를 포함, 각급학교 21곳이 신설된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학교 설립과 시설·교실 증축 등을 담은 '유·초·중·고·특수학교 중기 학생수용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일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단·병설 유치원 5곳을 세워 저소득층 유아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광산

구 수완 택지개발 지구 등 6개 개발지역에는 초등학교 7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또 6개 개발지역에 중학교 6곳을 세워 과밀화급을 해소하고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1곳, 수완지구 1곳 등 고등학교 2곳을 신설한다.

이밖에 2012년 3월 북구에 특수학교인 선우학교(가칭)를 신설해 특

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 등의 통학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 공립 특수학교는 지난 86년 선광학교 개교 이래 26년만에 처음 들어서는 것이다.

시 교육청은 도심권 공동화와 건물 노후화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광주 여자고등학교를 동구 장동에서 서구 화정동으로, 광주과학고등학교를 남구 주월동에서 북구 옹동으로 옮길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청소년 근로 권익 침해

### 광주시·노동청 3건 적발

광주시는 7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광주지방노동청과 합동으로 일반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PC방, 게임장, 편의점 등 39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여부를 점검해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 근로 미계약 1건 ▲연소자증명서 미비처 1건 ▲최저임금(시간급 4천원) 미준수 1건 등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적발 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 광주정신계승 전국 마라톤대회

### 북구, 10월 25일 5·18모지

광주시 북구는 오는 10월 25일 국립 5·18 민주묘지 광장에서 호남 선비들의 사립 정신과 5·18 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8회 광주정신계승 전국 마라톤대회'를 연다.

참가 희망자는 5km·10km·하프코스

(21km)로 구분해 9월 25일까지 인터넷(gjspiritmarathon.or.kr)이나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5km코스는 1만원 ▲하프코스·10km코스는 3만원 ▲마니아 회원(하프·10km코스)은 2만원 ▲20명 이상 단체 참가자는 할인(20%)해 준다.

마라톤 코스는 ▲5km는 국립 5·18

민주묘지~석곡동 태령마을 입구(반환점) ▲10km는 국립 5·18 민주묘지~석곡동 등촌마을(반환점) ▲하프코스는 국립 5·18 민주묘지~제4수원지(제1반환점)~담양군 고서면 보촌마을(제2반환점) 등 농촌의 풍경과 무등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자연 길에서 펼쳐진다.

또 행사 당일 완주자 전원에게 기념메달이 지급되며, 부문별 종합순위 입상자에게는 5만~3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7분 해질 19시 29분 달돋이 20시 26분 달짐 07시 37분

**소나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흐리고 곳에따라 소나기가 오는 지역도 있겠다.

광주	흐리고 한때 비	23/31℃
목포	흐리고 한때 비	24/29℃
여수	구름때물	23/27℃
완도	구름때물	23/29℃
구례	흐리고 한때 비	22/32℃
영암	흐리고 한때 비	24/30℃
장흥	흐리고 한때 비	23/30℃
고흥	구름때물	23/29℃
순천	구름때물	23/31℃
영광	흐리고 한때 비	24/31℃
진주	구름때물	24/31℃
전주	흐리고 한때 비	23/31℃
남원	흐리고 한때 비	23/30℃
육산도	구름때물	23/28℃

시간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오전	동~남동	1.5~2.5m	☀	🍌	☹
오후	동~남동	1.5~2.5m	☀	🍌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4/31	24/30	24/29	23/29	23/31	23/31